
기관 · 단체 소식

농림부

축산국 조직개편 확정

농림부 축산국 조직개편이 마침내 확정됐다.

농림부는 현 축산국 명칭을 그대로 유지기로 하되, 방역과 위생업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는 과 명칭을 현행대로 하는 반면 '축산물유통과'는 '축산물위생과'로, '가축위생과'는 '가축방역과'로 각각 명칭을 개칭하기로 했다.

◆ 계란 수매비축 실시

농림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계란 3천만개를 시가 수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계란의 비수기인 6월초부터 계란가격이 생산비(710원/10개) 이하로 형성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계란가격 하락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 계란을 수매비축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매한 계란은 최소 1개월간 보관후 계란가격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가공란으로 출하할 계획이며, 수매기간은 계란가격이 생산비(710원/10개)이상으로 회복되어 1주일간 지속될 때까지로 할 계획이다. 비축 수매물량은 서울경기양계조합 900만개, 대전충남양계조합 450만개, 전북양계조합 200만개, 광주전남양계조합 450만개, 대구경북양계조합 1,000만개를 조합별로 수매할 예정이다.

축산기술연구소

과명칭 변경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동물유전자원 연구의 집중 육성 및 축종별로 연구의 전문화를 강화키 위해 지난 6월 과명칭을 변경했다. '중축개량부 검정기술과'는

‘유전자원과’로 변경되었으며, ‘대가축과’는 ‘낙농과’로, ‘중소가축과’는 ‘양돈과’로 변경되었다.

◆ 2002년도 제2회 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고

축산기술연구소는 2002년도 제2회 연구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한다.

이번에 특별채용인원은 축산연구사 8명, 가축위생연구사 2명 등 총 10명으로 축산연구사는 ▲유전체, 유전자기능 또는 단백질체 분석 연구 3명 ▲가축복제 및 형질전환 연구 1명 ▲가축육종 및 집단유전 연구 3명 ▲가축번식연구 1명이며, 가축위생연구사는 ▲가축번식연구가축질병 예방 및 진료 2명이다.

응시자격은 20세이상 40세까지로 축산연구사의 경우 관련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가축위생연구사는 관련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26일), 2차 적격성심사(30일), 3차 면접(8. 1일)으로 이루어지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축산기술연구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031)290-1516~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사발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과장 직위 승진

부산지원장 박재현(서울지원 검역과장)

- 과장급 전보

방역과장 임경중(부산지원장)

서울지원장 권영돈(방역과장)

농협중앙회

창립 제41주년 및 통합 제2주년 기념식 거행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3일 오전 10시 중구 충정로 소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새농민회장,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1주년 및 통합 2주년 기념식을 갖고 농업인에게 더 많은 실익을 제공하여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